



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시·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

<보도 주요내용>

5.9.(목) 헤럴드경제 「한미일 산업장관, 내달 미 워싱턴에서 만난다... 공급망·에너지 협력 강화」에서는 다음달 美 워싱턴 D.C.에서 첫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·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對중국 수출통제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국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,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희 (044-203-5651)
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주원석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섭 (044-203-5677)